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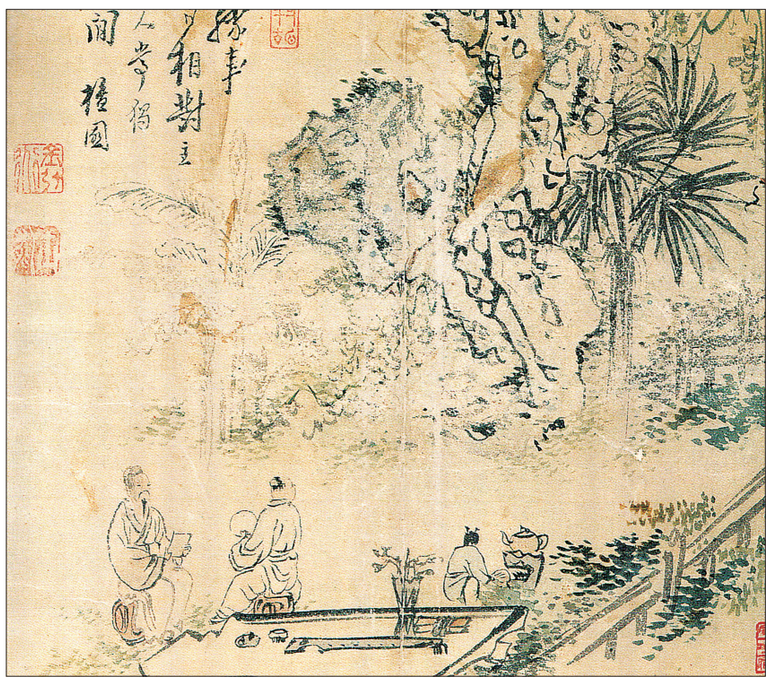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⑰ 상품으로서 茶

"지천 널린 茶 통해 부국강병을"

조선 후기 이덕리(1725~1797)가 지은 〈기다(記茶)〉는 차를 팔아 국익과 백성의 삶에 보탬이 될 정책을 제안했지만,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그의 제안이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제안은 실용화되지 못한 건의서에 불과하지만, 최초로 차의 실용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중국이 차를 수출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오랑캐를 방어하는 기이한 재화로 삼았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차의 활용에 주목한 그의 〈다설〉과 〈다사〉, 〈다조〉는 차문화사에서 주목할 문헌 자료라 생각한다. 차를 이용한 그의 부국에 대한 열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간송미술관 소장 김홍도의 '전다한화'

조선 후기 이덕리 〈기다〉, 중국 차 수출 제안
유배된 몸이었으나 부국을 위한 충정심 빛나

우리나라는 (차가)울타리나 섬돌 곁에서 자라고 있지만 흙이나 숯처럼 쓸모없는 물건처럼 여기며 그(차) 이름조차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다설〉 한 편을 지어 다사를 아래에 조목별로 나열하여 당국자가 시행해 볼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我東則產於芭籬堦陛 而視若土炭無用之物 并與其名而忘之 故 作茶說一篇 條列茶事于左方 以爲當局者建白措施之地云爾)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 말, 당시의 차 문화는 거의 쇠퇴하여 차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차를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오랑캐를 막는 재화로 삼을 만큼 차의 경제적 가치를 국익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천으로 자라는 차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늘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했던 그는 유배된 몸이었지만, 지천에 널려 있는 차를 이용하여 나라와 백성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던 의지를 드러냈으니 그의 충심은 이처럼 빛났다.

결국 그가 제안한 큰 뜻은 나라의 경제력이 넉넉해지면 백성도 힘을 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다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배로 서북지역의 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운반하여 차를 은과 맞바꾸면, 주제의 고급 은으로 만든 그릇과 촛대가 물길을 따라 잇달아 들어와 지역마다 배당될 수 있다. 차를 말과 교환한다면 기주북쪽 지역의 준마와 양마가 성 밖 쓸모없어 놀리는 땅에 가득하고 교외 목장에 넘쳐날 수 있다. 차를 비단과 바꾸면 서촉 지방에서 짠 고운 비단을 사녀들이 나들이옷으로 걸치고 깃발의 천도 바꿀 수 있다. 나라의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백성의 힘이 절로 펴질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앞서 내가 황량한 들판의 구석진 땅에서 절로 피고 지는 평범한 초목을 얻어서 나라에 보탬이 되고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舟輸西北開市場 以之換銀 則朱提鐘燭 可以軟川流 而配地部矣 以之還馬 則驥北之駿良駃騠 可以充外閑 而溢郊牧矣 以之煥錦段 則西蜀之織成綺羅 可以衒士女 而變旋幟矣 國用稍優 而民力自紓 更不消言 而向所云得於荒原隙地 自開自落之閑草木 而可以裨國家裕生民者 殆非過言)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차를 팔아 은으로 교환하여 물자가 풍부해지면 여러 지역으로 좋은 그릇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차를 좋은 말로 바꾸면 말이 넘쳐나 적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차를 활용한 그의 제안은 차로 비단을 교환하면 온 백성이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으며 깃발을 만드는 것에도 기여할 것이라 하였다. 결국 그는 차를 팔아 살림에 필요한 용기와 옷 등 미풍양식에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마련하고자 하였고, 말을 길러 국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국가의 경제력이 나아지면 백성의 살림살이도 넉넉해질 것이란 그의 확신은 〈다설〉에서 확인된다. 더구나 지천에 널려있는 차라는 재화를 이용해 국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의 견해는 탁견이었지만 실천할 수 있는 시대환경이 아니었다. 사람이나 보잘것없는 초목도 그 쓰임에는 때를 얻어야 하는 법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가정(假定)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차에 대한 건의가 정책으로 채택됐다면 조선 후기 차 문화의 흐름은 상상하지 못할 문화 유형을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차 문화사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문화 형태를 구현했던 시기는 고려시대였다. 차와 청자 다구, 차를 즐기는 계층의 문화 수준 등이 송나라와 비견될 정도로 발전된 차 문화를 구가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경제적 산물로 차를 활용한 사례는 드물다. 다만 왕실 귀족층, 사원의 승려, 문인들의 정신적 향상이나 문예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필요한 정신 음료로 그 가치를 중시했다. 실로 차의 원천적인 진수를 향유했던 시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송나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매개물로 차를 즐기는 한편 차를 활용하여 황실의 경제력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니 이는 전매 제도인 각다법(차의 세금법)에서 드러난다.

아무튼 이덕리의 〈기다〉는 후일 강진 백운동 이시헌(1803~1860)의 집안에서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이를 통해 그의 차 교역에 대한 제안도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그의 〈기다〉에는 식은 차를 마신 후 몸의 변화를 언급한 내용인데, 이는 차를 어떻게 마시는 것이 사람에게 이로운지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바로 그가 막걸리를 몇 잔 마신 후 곁에 냉차가 있는 것을 보고 반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목에 가래가 끓어올랐다. 10여 일을 뱉어내고서 겨우 나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현대인의 차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바로 식은 차를 마시면 가래가 생긴다는 점이니 식은 차는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㉞

1. 다음 중'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 탄생게의 의미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나 자신만이 제일이라는 독불장군식 의미이다.
② 부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왔다는 의미이다.
③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신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④ 나는 물론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인간 자존성의 천명이다.
⑤ 나 자신만이 세상의 고통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유일신적 표현이다.

해설 :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직역하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제일 귀중하다)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나란 부처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중생)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즉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존귀한 것은 사람(중생)이라는 말이다. 그럼으로 독불장군이라든가, 세상을 다스림, 신의 자리, 유일신적 표현은 아니다.

2. 싯다르타 태자의 생모인 마야왕비는 태자를 잉태하고 어떤 내용의 태몽을 꾸었는가?

① 흰색의 호랑이가 마야왕비를 업고 하늘로 날아갔다.
② 여섯 마리의 코끼리가 룸비니 동산에서 놀고 있었다.
③ 북두칠성의 7개 별 중에 하나가 떨어져 마야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왔다.
④ 여섯 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와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왔다.
⑤ 싱싱한 초록빛에 비취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공작 한 마리가 마야왕비에게 다가와 예를 갖추고 물러갔다.

해설 : 마야왕비는 여섯 개의 이빨(상아)를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와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싯다르타 태자를 잉태하였다. 참고로 태자는 잉태 이후 태어나실 때도 옆구리로 나오신다.

3. 마야왕비는 싯다르타 태자를 출산하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싯다르타 태자는 이모의 손에 의하여 양육되었는데, 그 이모의 이름은?

① 아르주나
② 시하하누
③ 야소다라
④ 마하빠자빠띠
⑤ 위슈아미뜨라

해설 : 마하빠자빠띠이다. 한자로 대애도(大愛道)라고도 하며, 나중에 최초의 비구니스님이 되는 분이다.

4.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한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② 세속의 속박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③ 생로병사가 괴로워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기 위해
④ 나라의 왕이 되어 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
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해설 : 출가는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세속의 속박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 나라의 왕과 같은 세속적 지배자가 아니라 법의 왕이라는 진리의 왕이 되기 위해 나서는 길이다. 그럼으로 싯다르타 태자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승리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출가하였다.

5. 수행자'고타마'는 우유죽으로 기운을 회복한 후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장소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반석 위에 '솟티야'가 공양한 풀을 깔고 동쪽을 향해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게 된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인연을 지은 이 풀을 무엇이라고 하나?

① 길상초(吉祥草)
② 무우수(無優樹)
③ 도리천(忉利天)
④ 사라수(紗羅樹)
⑤ 백상초(白象草)

해설 : 부처님이 되시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길한 일이다. 이 제일 길함을 길상이라고도 한다. 그럼으로 솟티야가 공양한 풀은 제일 길한 풀, 즉 길상초이다. 그리고 솟티야의 다른 이름이 길상동자이기도 하다.

정답 : ①, ④ 2. ④ 3. ④ 4. ⑤ 5. ①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